

'친절하고 온순한' 흰옷의 조선인 모습

〈한말 외국인 기록〉(전22권) 19권 출간

“조선의 모든 것은 우리들이 떠날 때 만주에서 보았던 것과는 이상한 대조를 이뤘다. 만주의 차가운 색조는 따뜻하고 붉은 흙으로 바뀌었으며, 그 위에는 푸른 봄의 첫 상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푸른 옷 대신 여기의 모든 사람들은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눈에 띄었다.”

영국의 풍경화가 에밀리 조지아나 켈프 여사는 《조선의 모습》에서 1910년 조선의 첫 인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질문당에서 전22권으로 출간하는 〈한말 외국인 기록〉은 18세기부터 조선을 다녀간 외국 여행자·선교사·탐험가·의사·외교관 등의 기록을 옮겨놓았다. 그들의 기록은 단순한 인상기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분석까지 아우른다.

이번에 먼저 19권이 출간됐는데, 이준 등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험버트가 쓴 《대한제국명말사》는 명성황후 시해 등 당시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정치상황, 문화 등을 입체적으로 살폈고, 런던 《테일리 메일》 극동특파원으로 러일전쟁 중군기자로

활약한 《대한제국의 비극》은 을미 사변을 전후한 우리나라 의병들의 움직임을 담고 있다.

《하멜 표류기》나 뒤 알드 신부의 《조선전》 등은 풍물 소개가 많고, 《한국독립운동의 진상》(칼튼 켈달), 《한국의 독립운동》(프레드릭 맥켄지)처럼 일본의 압제와 그에 대한 독립운동의 흐름을 살핀 책도 있다. 연희전문학교 설립자인 호레이스 언더우드의 아내였던 릴리아스 언더우드의 《상투의 나라》, 새비지-랜더어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인상기에 가깝다.

그리피스스의 《은자의 나라 한국》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한국의 역사를 소개한 책이고, 법률학자였던 데니는 《청한론》을 통해 조선의 주권에 대한 청국의 횡포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필렌도르프’를 겨냥해 조선의 자주를 옹호한다. 필렌도르프의 아내가 쓴 《필렌도르프 자전》에는 이 《청한론》에 대한 필렌도르프의 생각이 담겨 있어 좋은 비교가 된다.

선교사로 개성의 호수돈여고 교장을 지냈

던 와그너 여사의 《한국의 아동생활》은 어린이를 소재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어린이를 사랑하며, ... 정상적인 생활은 태평하고 밝으며 행복하다. 그러나 재난과 고난이 닥칠 때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슬프고 절망적으로 울부짖는다”고 한다.

켈프의 《조선의 모습》은 직접 그린 그림이 큰 볼거리다. 납작한 꽃나무와 어우러진 묘지, 조바위를 쓴 여성의 기품있는 모습, 아기자기한 사찰의 모습 등이 인상적이다. 외국인들이 본 당시의 한국은 언더우드의 묘사대로 “굵주리고 더러운 인상”으로 “집에 관련된 모든 것이 지독히 비위생적이며, 불결하고 해충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사람만큼



한국의 아낙네. 제15권 언더우드 《상투의 나라》 중에서.

은 “친절하고 온순하다”.

《서울풍물지》를 쓴 길모어는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전통”으로 노동을 천대하는 양반을 꼬집는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보여준다. 물론 〈한말 외국인 기록〉에는 서구적인 시각과 가치관이 낡은 편견과 몰이해, 서구우월주의도 드러나지만 우리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출간의 확약도 없이 30년 동안 자료수집과 역주작업에 매달려온 건국대 신봉룡 교수(정의과)의 노고가 빛난다.

—이현주 기자

질문당/A5신/각 658~140면/각 28,000~7000원

'뉴미디어시'의 새로운 가능성

위승희·김정란 음반시집 《사이렌 사이키》

현대 사회에서 시는 궁벽한 외딴 섬에서 외로운 목소리로 떠돌고 있다. 값싼 감성에 호소하는 한층의 시와 시인들만이 시장에서 거래된다. 문학의 위엄을 지키려는 시인들은 생존의 임계점에서 서성이고 있다. 위승희·김정란 음반시집 《사이렌 사이키》는 '뉴미디어시'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시문학의 예술성과 대중성에 다리를 놓고자 하는 작지만 큰 시도다.

음반·영상·방송·인터넷·출판·홍보 등을 결합한 종합프로덕션 '현대시 엔터테인먼트'의 첫 성과물인 이 음반은 '멀티포엠'의 형식적 실험이다. CD라는 디지털 매체에 시와 음악 그리고 목소리를 결합시켜 대중과의 소통을 지향한다. 위승희·김정란의 시를 김만중·말로가 작곡하고 위승희의 노래와 김정란의 낭송을 담았다. '사이렌'은 일상 속

에 함몰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목소리, '사이키'는 고통스러워하며 헤매는 모든 영혼을 위안하는 목소리의 상징이다.

위승희 시인의 《정신측정》에는 《정신측정》·〈내 안의 골목길〉 등 8편의 시에 시인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가 담겼다.

“변방에 나 홀로 그림자와 이야기하다/옛 친구들 그리우면 바다로 간다”로 시작하는 〈그리움은 바다로 길을 낸다〉는 원초적 공간인 바다에서 혼자 있으면서 혼자 있지 않는 존

재를 서정적인 목소리로 노래한다. 〈정신측정〉에는 '분열'로 상징되는 현대의 존재론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실존적 깨달음을 “눈부신 태양 아래 나는 살아 있어”라고 절규하듯 노래한다. 화려한 음색에 반항적인 어법이 선곡은 시와 함께 융합된다.

김정란 시인은 《건너편의 여자》에서 〈비겁한 정원사들〉·〈돌로로사, 서울〉 등 6편의 시를 우수와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낭송했다. 형이상학과 신화적 상상력을 밑바탕으로

한 그녀의 시에는 영성의 신비로움과 지성의 예리함이 번득인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통곡하는 고통의 어머니 '돌로로사'를 이 땅의 어머니로 변



《정신측정》의 위승희 시인(왼쪽). 《건너편의 여자》를 낭송한 김정란 시인.

환한 〈돌로로사, 서울〉은 “악취가 진동하고” “거짓의 혀를 창궐”하는 이 땅에서 살아온 어머니들의 슬픈 영혼을 한국적 정서가 담긴 가려진 선율로 위로한다.

이 음반은 멀티미디어적 매체환경에서 시가 나아가길 전위적으로 보여준다. 시가 홀로 높은 곳에서 텅명스럽게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 파고들어 고통과 슬픔을 붙잡아 서로 어루만지듯 소통함으로써 시가 놓여야 할 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천홍 기자